

금요 수필

사는 게 쓸쓸할 때

누구나 인생길 가면서 세상 살아가고노라한다. 음악 회로에타이 다 있고, 글국 있고 파란만장하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오죽하면 네 설을 제쳐놓고 네 설을 들어보라 하지 않던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찬가지인 것이다. 사람 사는 게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원래 인생사가 고행이다 했다. 사는 것이 운동 어려움이고 괴로움이며 고행이다.

하지만 살다 나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으니 살맛 나는 것도 사실이다. 윤택적으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생리적으로 즐겁고 바랄 게 없다. 사람이라는 게 보해서 본능적인 충성단으로는 행복감을 못 느낀다.

살면서 가끔은 뭐가 허전한 것처럼 마음에 공허를 느끼게 될 때도 있다. 정신적으로 허탈하여 외롭고 쓸쓸함이 들어나는 때가 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가워지고 심란하고 누르며 빈 하늘만 바라볼 때가 있다. 뒷가를 볼 것 같고 잠을 것만 같은데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상실감 같은 게 있다. 나만 보면 성실함이 들어있는 일상이지만, 쓸쓸한 어느 뜰목이 찾아와 마음을 뒤흔는다.

소위 동중 정(動中靜)이라고 할까. 고요 속에 휘감겨 뉘지 모르지만, 마음을 해집는 때가 있다. 내게 이런 감정은 누군가에게 선포하지 못한 채로 조용히 머물러 있다.

그런 쓸쓸함은 대체로 밤에 더 짙어진다. 침대에 누워 지난 하루를 돌아보다 보면, 마음 한편이 허해진다. 모든 것이 조용해진 순간이고 가장 슬직한 내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고요하고 석막한 밤에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쓸쓸함을 더해준다. 그런 감정에 있어 내 안은 맑고, 명랑한 날이겠지 하고 희망적인 자위를 한다.

늦가을이지만 겨울의 초입 즈음 어느 날, 혼자 오솔길을 걸으며 떨어진 낙엽이 제멋대로 울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속 깊이 파고드는 스산한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 젊은 시절엔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으며 부스스러지는 낙엽 소리에도 가슴이 울렁이고 실레는데, 나이가 들으



석인수 수필가

니 부서진 낙엽이 조금은 처량하고 슬퍼 보인다. 곧 진토(塵土) 뿐 쉼비를 하는 것 같이 보여서일까? 사는 게 가끔은 바랄 수가. 보이지 않는데 어느새 스쳐 가고, 잔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 하루를 다 살아내고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을 때가 있다. 원가를 열심히 하며 살았는데 나는 게 없고 채워진 게 없는 일과였던 때가 있다.

매일 되풀이되는 무보한 일상이 꾸며져서인지 아니면 감각을 잃은 것인지 모르겠다. 괜히 평수는 낙엽을 연봉하게 뜨겁 짊어 해석하고 스치는 바람 소리에 새미를 건다.

이때는 나도 보르케 이기 내 안에 상심감과 쓸쓸함이 내려앉는다. 이유는 모르지만, 마음이 고장 난 것이나 상처가 난 것이다. 외로움, 고독이 나를 점령한 것이다.

살다 보면 그득 그득 날이 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데도 다름은 겨울처럼 쌀쌀한 날이 있고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날이 있다. 누군가 얘기하고 있음에도 귀에 들리지 않고 견성이며 통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행하니 구멍 뚫린 내 안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따금 세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막이 생겨버린 탓일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는데, 일상이 내 안의 삶은 달을 넘지 못하고 있다. 피폐하고 가냘픈 마음이 세상에 짓눌려 박(幕) 너머를 수놓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마음이 텅 빈 듯하고, 세상이 나를 지나쳐 가는 듯한 정황을 겪을 것이다. 어떤 번 쓸쓸함과 외로움이 마음을 휘감는 날이 있다.

괜히 센티멘탈(sentimental) 한 날이 있다. 어느 때와 별로 다르지 않

만 바람이 유난히 차고, 거리의 풍경도 어쩐지 멍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 유일 창가에 조용히 앉아, 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무상(無常)에 빠진다.

적막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른다. 젊은 시절엔 쉽게 펼쳐 버릴 수 있었던 일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불편하고 쓸쓸함이 더욱 짙어진다.

가끔은 아무 할 일도 없는 날이 쓸쓸하다. 북타기러던 일상의 소음이 몇은 시간, 불현듯 마음 한구석이 뻥뻥진다.

늘 바쁘게 살다가 문득 고요 속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밀려올 때가 있다.

‘사는 게 원래 이런 것인가?’ 하고 나에게 묻는다. 무더전호한 눈에 외로움이 투쟁을 파고든 것이다. 지나온 시간의 흔적을 찬찬히 되짚게 된다. 나를 되돌아보며 사색에 잠기기도 한다. 평소엔 보이지 않던 내면의 내가 보이고 허무로 살았던 순간들도 떠올리며 쓴웃음을 건다.

쓸쓸함은 내 삶의 한 마디지만 삶의 여정에 던지는 상념의 신들이고 작은 침포이기도 보인다. 또한, 쓸쓸함은 나의 정체성과 있었던 자아를 발견하여 미래의 삶을 교정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신호이기도 보인다. 그래서 쓸쓸함과 외로움은 삶의 한 부분이자 동반자이고, 삶의 촉매이며 자양분이기도 하다.

쓸쓸함과 외로움은 나를 더 사려 깊게 단련다. 피해야 할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를 더 다잡고 새롭게 삶을 지탱해 나가도록 하는 오와 감성을 하게 되는 과정임을 깨닫는다. 깊은 밤 혼자 고독에 빠졌을 때 비로소 진솔한 나를 마주하게 된다.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며 자신에게 묻고 답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외롭고 쓸쓸할 때면 그 상황을 탓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그 상황을 분석하고 찾아 들어 또 다른 미래의 삶에 집중하려 한다. 그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므로 감사하며 갖으며 극복하려 한다.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한 것은 누구나 겪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바쁜 세상 살아가도 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한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지향하며 사는지, 내가 진실로 추구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계기가 된다.

살면서 긍정적,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쓸쓸함, 외로움, 공허, 고독, 허전함 등은 긍정적으로 자신이 받아들여 나스리고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평정심 향상을 위하여 물리적 능동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자기 돌봄과 소용, 긍정적인 활동으로 극복하고 자신을 지탱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자신에게 상당하고 취미 생활에 몰입하여 새로운 취미를 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즐거운 기억,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쓸쓸함, 외로움, 고독 같은 것을 피할 수 없다. 그것들은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찾아오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국, 이때는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만의 시간을 잘 다스릴 때 오히려 더 깊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 세롭고 다른 차원으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중요요인이 찾아온다.

쓸쓸하고 외로움 순간이 오면, 그것을 삶의 본령으로 알고 대처하면 된다. 새 힘을 받는 삶의 마디고 자랑스럽게도 생각하라.

“2005년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 수상: 홍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 근정포장, 전북편문학상, 한비문학상대상, 한국을 빛낸인물대상, 대한민국문학예술대상, 행촌수필문학상, 수필과비평문학상 등 저서: ‘생각이 머무를 때면’, ‘그래서 당신을’, ‘발자국 없이 걸었던 내’, ‘다시 숲길을 먹으며’, ‘세월의 흔적’, ‘살며 생각하며’ 등

사설

2026 전북자치도 서예분과 초대 작가선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초대작가선이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 1층 기스라에서 열렸다. 주관은 서예 분과 초대 작가회가 맡았다.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81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서예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문화 예술이다. 오랜 세월 동안 정서 함양과 인격 수양에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장기간 침체의 길을 걸고 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문화 예술 육성 지원 사업'도 갈수록 경쟁률이 높다.

몇 십 년 된 단체들도 탈락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서예가 살아나려면 저변 확대와 다양

한 작품들을 자주 발표할 수 있는 전시 환경과 작품 판매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서예가들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꾸준히 먹을 갈고 붓을 세우나가야 할 것이다.

원안(元寬) 오광석(吳光錫) 전북미술 서예 분과 초대 작가 회장은 < 어려운 환경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불굴의 창작 정신으로 좋은 작품들을 출품해 주신 선후배 작가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고 전했다.

많은 도민들이 전시장을 찾아 관람하고 일상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여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전북전통공예인협회선

제34회 사단법인 전북전통공예인 협회선이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협회전에는 무형유산, 명인, 명장 9명 그리고 출품작가 34명이 출품했다.

박광철 이사장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사람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전통공예의 본질적 가치는 결코 쉽게 대체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전통공예인협회는 1992년 이의식 초대 회장을 시작으로 출범했다. 2004년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1대 최동식(무형문화재 제12호 약기장) 이사장과 2022년 7대 박광철(발봉도예) 이사장까지 이어오고 있다.

특히 사)전북공예인 협회는 8개 분과(목질/금속/도자/한지/서각/삼유/민화/기타)로 전북전통공예

전국대전 공모전을 하고 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인재에게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각 분과의 무형문화재 선생님들과 작가들이 매년 회원전을 통해 전통공예 문화의 우수성과 전주의 공예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전통공예인협회는 2022년 제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뜻깊은 오프닝을 했다. 오프닝은 2022년 8월 2일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회원들과 귀빈들을 초청하여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통공예에 관심 있는 분들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관람을 기대하며 가족들과 문화 나들이도 좋을 것 같다. 코로나 19로 침체되어 있던 문화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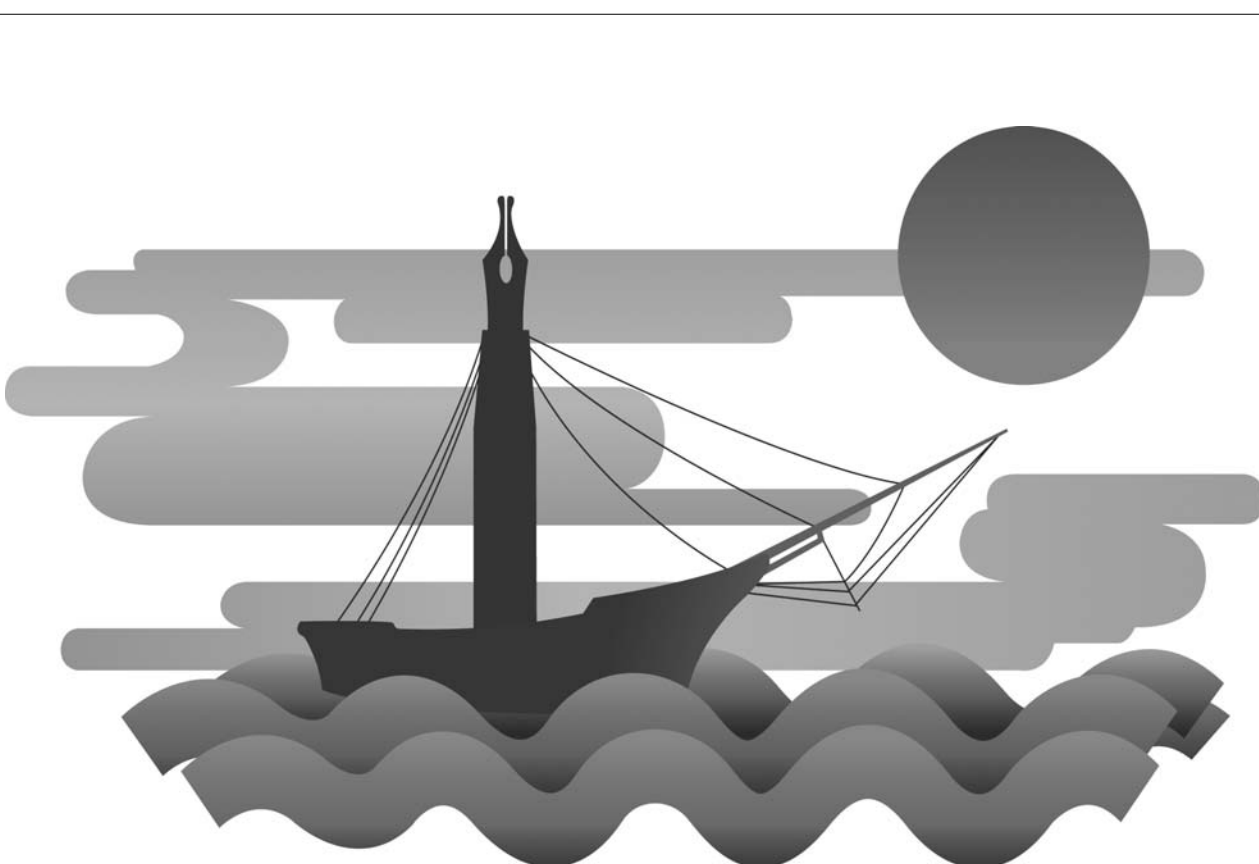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내 · 외 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